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 지속가능 중장기 방향 모색 '그린뉴딜 정책간담회' 개최

### 광주지역 국회의원·시의원·민간단체 등 참여해 다양한 방안 제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주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윤영덕·이병훈·송갑석·양향자·조오섭·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주발전 방향을 위한 2030 광주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과 에너지, 물순환, 도시관리, 이형체제 등 분야별로 그동안 논의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에너지부에서는 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사업과 에너지 AI(인공지능) 분산 자원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재)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제안이 있었다.

교통·수송분야에서는 친환경 시내버스 교체 지원사업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친환경차 확대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의 안이 제시됐다.

또 소하천 복원사업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립화 등 물분야와 광주 녹색식당 인증, 도시형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등 농업분야 등도 포함됐다.

2030 광주 시정발전 방향모색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의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완성안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광주형 그린 뉴딜 사업을 지역 주도로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그린뉴딜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의해 강제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시의원들과 민간

에서 수차례 모임과 토론 끝에 안건이 나온 만큼 값진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13일에 그린뉴딜과 관련된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안을 맞춰보고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광주의 인프라와 상황은 마련돼 있는 것 같다"며 "마련된 정책이 광주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뒷받침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지역까지 세세한 정책은 나와있지 않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준비중인 것 같은데 이번 간담회에서 만든 안건이 정부의 안을 매칭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 부영그룹, 한전공대 부지 40만㎡ 기부 에너지 특화대학 '속도'

전남도는 28일 부영그룹(회장 이종근)이 한전공대 설립부지 40만㎡ 기부증서 전달식을 갖고 이달 말까지 학교법인 한전공대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부영빌딩에서 가진 행사에는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 최양환·김시병·이기홍 대표이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우윤근 한전공대 법사도민 지원위원회 고문, 윤병태 정부부지사, 김회천 한국전력 부사장, 강인규 나주시장, 한전공대 설립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부지 기부 전달식은 지난해 8월 부영CC 부지의 일부인 40만㎡를 한전공대에 무상 제공하기로 한 기부 증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최근 부영주택 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전달식에서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은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부지 기부증서를 전달하고, 김회천 한전 부사장은 이종근 회장의 통 큰 용단과 기부의 참 뜻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전공대 부지 확보에 따라 대학 설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세계 으뜸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요람이 될 한전공대 설립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부지 무상 기부에 대한 등기 이전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준 이종근 회장의 통 큰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의 참 뜻을 살려 한전공대가 세계 제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은 대통령령약 및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 지난해 1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설립 부지로 선정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지난 4월 17일 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20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

## 등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고민 해결

광주 동구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험확장을 위한 '청년 진로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참여자를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분야 1호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간접경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인생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나의 생각과 관심사 발견하기', '인터뷰 이론과 실습', '관계의 중요성', '연구계획서 작성'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아탐색과 연구역량강화 과정인 '#나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서구,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광주 서구가 광주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풍수해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구는 앞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형 옥외광고물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 했으며, 안전 취약 광고물에 대하여 업주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남구청 세무 공무원들, 장학금 1000만원 기부

광주 남구청 소속 세무직 공무원들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 세무1과와 세무2과 소속 직원들은 이날 오전 허가서 부구청장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세무직 공무원들은 올해 초 광주시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업무 성과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반납해 장학금 재원을 마련했다.

## 북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 등 복지안전망 강화

광주 북구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광주시에서 최초로 1인 가구 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북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동행 앱 서비스는 대상자가 최소 12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 요청 알람이 30분 동안 울린 후 미리 입력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긴급구호 메시지가 전달된다.

## 광산구,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제 실시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한다.

2018년부터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 우수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광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해서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산구는 방역 사각지대와 취약지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 앱(App)에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메뉴에는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안내된다.

임형택 기자

## 이용섭 "코로나 2차 유행 조짐...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해야"

광주에서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8일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광주 34·38번 확

진자에 대해 "현재 5명의 확진자가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에는 추가 확진자 5명에 대한 이동 동선의 방역을 완료했고, 현재 역학조사팀에서 진출과 CCTV, 신용카드, 휴대전화 GPS 내역 등의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원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3분위	4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엔 엄수하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여유로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하십시오.

국민이행캠페인 | 세상은 순서로 갑니다.